

문수 스님 뜻 따라 그 길을 걷습니다

경남 회룡포-낙단보 마애불-군위 지보사로 이어진 추모의 순례



순례 참가자들이 회룡포 마을로 들어서기 위해 내성천을 건너고 있다.



마애불이 발견된 낙동강 구간. 바로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장의 모습이 불안하기만 하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 1주기를 추모하는 마지막 행사가 진행됐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문수 스님 소신공양 선양사업회는 낙단보 일대와 지보사를 방문하는 순례를 6월 11일 마쳤다. 참가자들은 순례를 통해 이 땅의 생명평화를 위해 희생한 문수 스님의 희생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전문>

#1 출발 - 긴장과 설레임의 교차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참가자들의 모습은 주말의 단장을 놓쳐버린 아쉬움과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서막함, 순례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된 모습이었다.

참가자들이 모두 승차차 버스는 아직 잠이 덜 깬 서울 시내를 달리는 듯 하더니 이내 고속도로를 타고 도시를 벗어났다. 문수 스님 추모 마지막 행사이고 주말에 진행된 탓인지 참가자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소규모 인원은 오히려 서로에 대한 소통과 문수 스님의 뜻을 공유하기에 오히려 적당했다. 참가자들은 버스 안에서 간단히 자기 소개를 나눴다.

#2 회룡포 - 절경 속 4대강의 압문

4시간 정도 달려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경상북도 예천의 회룡포였다.

순례단은 토요일 오후의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비룡산 전망대가 있는 비룡산에 올랐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함께 산을 오르다보니 처음의 서막했던 감정은 조금씩 사라졌다.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오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순례단은 서서히 가까워졌다.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회룡포 마을은 이뉠처럼 낙동강 상류의 지류인 내성천이 용처럼 마을을 휘감고 있었다. 내성천이 마을을 휘감아 도는 모습에서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참가자들은 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이끌고 전망대까지 오를 피로도 잊은 채 아름다운 전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나 내성천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마을은 위기에 처했다. 댐이 건설되면 내성천의 모래가 하루로 쓸려내

려가도 상류에서 새로운 모래가 공급되지 않는다. 내성천 하류에서는 낙동강 구간 4대강 개발이 진행 중이라 회룡포 마을의 모래 침식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지금의 절경이 사라질 위기인 것이다.

참가자들은 산을 내려 회룡포에 직접 가보기로 했다. 한 동안 산을 내려가자 전망대에서 바라봤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내성천은 물 속이 다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았고, 모래사장은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마을과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는 철제로 된 작은 다리 뿐이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회룡포 형체 알아볼 수 없는 낙동강

내성천을 건너 모래사장을 지나 들어선 회룡포 마을은 한적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4대강 사업으로 변화될 회룡포의 미래를 아는지 모르는지 평화로운 정경만이 가득했다.

현회련 예코부터 사무국장은 "같은 것을 보고도 생각하는 것이 다른 모양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환경을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과 이익을 먼저 떠올린다"며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될 회룡포의 앞날을 안타까워했다.

#2 낙동강 - 위태로운 부처님

버스에 다시 오른 참가자들이 찾은 곳은 마애불의 발견과 훼손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낙단보 4대강 공사구간이었다.

낙단보에 도착하자 참가단은 낙동강 곳곳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게 파헤쳐진 모습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광활한 낙동강 곳곳에서 대형 중장비들과 공사 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마애불이 발견되고, 문수 스님이 저 모습을 보시며 소신 공양 하셨을 것을 생각하니 참가자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공사장 입구에는 '천년 전 마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마애불

이 있는 곳을 안내하는 표지판들이 설치돼 있었다. 안내에 따라 철제 사다리를 내려서 좁은 통로에 들어서자 흰색 천으로 둘러싸인 작은 장소가 나타났다. 마애불은 그 속에서 낙동강과 중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이 아닌 직접 눈으로 보는 천공은 더 깊고 커보였고, 마애불의 얼굴은 쓸쓸해 보였다.

방금 전까지 회룡포에서 보았던 맑고 아름다운 모습과 대비되면서 낙동강 현장은 더욱 처참하게 느껴졌다. 이곳에서는 자연의 맑고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참가자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로 현장 소식을 전달도 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두현 불교환경연대 조직국장은 "직접보니 정말 참담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마애불이 제대로 보존 될 수 있는지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3 지보사 - 지친 마음의 안식처

참가자들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음 예정지인 지보사로 향했다. 충격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정보다 다소 서둘렀다.

지보사 입구에는 몇 일전 마련된 문수 스님의 부도탑이 참가자들을 맞이했다. 크지 않은 규모로 주변 산세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보사의 아늑함은 참가자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듯 했다. 참가자들은 법당에 둘러 부처님과 문수 스님에게 기도를 올렸다. 사진 속 문수 스님이 온화한 표정으로 참가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법당에서 나온 참가자들은 지보사를 둘러보며 문수 스님의 자취를 느꼈다. 아늑한 주변 경치와 고즈넉한 사찰이 수행처로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런 환경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문수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 실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수 스님이 생전에 사용하시던 방은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됐지만 아직 스님의 맑은 기운이 넘쳐 나는데 보였다. 스님은 이곳에서 수행 중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중생들의 아픔을 슬퍼하시며 낙동강으로 걸어가 소신 공양을 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문수 스님 부도탑 앞에 모였다. 얼마 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스님을 추모하며 세운 부도탑이다.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석종의 형태로 제작된 부도탑이 참가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듯 했다. 참가자들은 부도탑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의 뜻을 계승할 것을 다짐하며 두 손을 모았다.

#4 회향 -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년 전, 문수 스님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 낙동강에서는 4대강 공사 중 마애불이 발견돼 온 국민을 놀라게 했다. 마애불도 문수 스님처럼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참뜻이 낙동강 사업 구간에서만 두 번이나 발현됐

SNS로 현장 전하며 한숨 문수 스님 뜻 실천 다짐

음에도 여전히 공사는 진행 중이고, 4대강 사업 반대에 대한 불교계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참가자들은 성토와 반성 등 순례의 소감을 나눴다.

강인영 보살은 "순례에 참가해 현장을 직접 보니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게 느껴졌다. 낙단보에서의 부처님의 처참한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 같다. 전국의 있는 사찰과 포교당들이 매일 낙단보에 와서 기도를 하고 불교계가 어떤 마음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자연을 거슬러서는 살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지연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지도위원장은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부처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현회련 국장은 "이 땅의 생명을 생각하며 눈물짓던 수경 스님 생각이 많이 났다. 낙동강에 들렀을 때는 내가 죄인이다 싶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소중한 생명들이다. 나부터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문수 스님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며 소신 공양을 하셨다. 마애 부처님이 낙단보에 나타났다는 것은 4대강 사업을 막아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불교계가 적극 나서서 만만 충분한 명분이 있음에도 이런 의미들을 스스로 축소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 했다. 중생을 위해 넓은 마음을 내고 생명을 위하는 씨앗을 키워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참가자들이 문수 스님 부도탑 앞에서 스님의 뜻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 2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제포교사(승려, 재가 법사)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맘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웬지 부족함을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8월 18일, 수계의식 6박 7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신청기간 : 7월 10일까지 모든 서류 접수 완료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